



광덕스님



안상수씨가 현대적인 문체로 디자인한 '광덕스님의 일종계'

이호신씨가 한지에 그린 수묵담채 '금하당 광덕대선사 전영'

광덕스님, 그림·조각으로 '환생'

도피안사 개산조...원적 3주년 추모전

22일부터 불일미술관서

"전법으로 보리를 이루라."

다지막 순간까지 전법의 사명을 강조했던 금하당(金河堂) 광덕(光德) 스님이 원적 3년여만에 서울에서 환생한다. 수묵으로, 유화로, 사진으로 그리고 조각과 도자기로 환생해 무언의 장공설을 펼친다.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광덕스님 원적 3주년 추모 전시회 '환생'.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아로새긴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모두 5가지의 테마로 구성된다.

제1장의 주제는 '아, 광덕스님'. 한국화가 이호신씨가 그린 광덕스님의 전영과 안상수씨의 한글 주련 등을 통해 스

님의 평생 원력을 다시 살리게 한다. 제2장은 '환생의 땅'을 주제로 삼고 있다. 관조스님과 박하선시를 비롯한 사진 작가들이 티베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강렬한 환생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제3장의 주제는 '기원'이다. 강대철의 조각 작품과 김기철의 도자기를 통해 광덕스님의 재회를 느낄 수 있다. 모든 작품

이 환생이라는 공통된 주제의식 아래 제작됐다.

이번 전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제4장은 '시봉일기'다. 광덕스님의 수행 일화와 전법의 열정을 이규경씨가 파스텔화로 표현했다. 찬찬히 그림을 감상하다보면 광덕스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광덕스님의 생전 모습이 파스텔로 그려져 있다. 마지막 주제는 '스님, 어서 오시지요'. 화가 최홍원씨의 유화 작품과 김철현씨의 사진으로 꾸며진다. 안성 도술산 도피안사 도당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광덕스님이 개산한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스님이 마련했다.

스님 가르침 새긴 작품을

5가지 테마로 한자리에

수행일화 그린 파스텔화

우리곁으로 성큼 걸어오듯

'바라밀운동으로 신령의 새로운 패션을 제시했고 출판과 문화운동, 거사불교의 활성화 등 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던 광덕스님의 진면목을 다시 느끼며 환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란 설명이다. 전시되는 작품을 일체 판매하지 않고 도피안사에 세워질 광덕스님 기념관에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송암스님은 은사인 광덕스님의 입적 이후 산문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천일 기도를 하며 광덕스님의 유지를 천창하는 데 몰두했다. '시봉일기' 시리즈로 7권의 책을 출간했고 지난해에는 금하당행상을 제정해 안성지역의 효실 가꾸기를 이끈다.

임연대 기자 yem@buddhapia.com

불화가 박정자씨 '사불교본' 출간

불보살 등 60여 가지 소개

불보살의 형상을 그리는 사람을 '불모(佛母)'라고 한다. 하지만 불모가 되기 위한 필력을 익히려면 탕화초를 수천장 그려보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경을 하듯이 한 장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쉽게 붓을 들지 못한다. 최근 불화가 박정자씨가 펴낸 두 권의 <사불(寫佛)교본>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은 그림에 자신이 없는 불자들도 쉽게 불보살을 형상화 할 수 있도록 초(草)를 모아 놓았다. 신문 크기의 <사불 교본>에는 관세음보살, 53불, 탕화정초, 불살대보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등 불보살과 경전내용이 6개 장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의 종류도 6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 또 각 불보살의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사불하기 전에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선 그을 땀 숨 멈추고 부처님 상호로 마무리"



▶사물초본 작업을 하고 있는 박정자보살.

박정자씨는 "그리고자 하는 원초를 한 장 복사해 바닥에 고정시킨 후 화선지의 매끄러운 면이 위로 가도록 덮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된다"며 "선을 그을 때는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좋으며, 부처님의 상호는 맨마지막에 그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박씨는 "어느정도 실력이 생기면 두꺼운 천이나 종이 사본한 후 불감과 크레파스로 탕화 도록을 보고 재색하면 한 점의 탕화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611-333-4472

김주일기자

jm@buddhapia.com

이도다완 재현... '하동 찻사발' 전시

길성씨, 하동태도·매화피 비밀찾기



▶잔설(殘雪)의 아릿한 흔적과 잔잔한 물결 이미지가 첫눈 속에 녹아 있는 길성씨의 '하동 찻사발'

차원의 으뜸으로 여겨지는 이도다완 재현에 앞장선 도예가 길성(57)씨가 18일부터 29일까지 중구 갤러리 코리아에서 불교 TV의 초청으로 '하동 찻사발'을 연다.

이번에 전시되는 길성씨의 찻잔은 다른 찻잔과 확연히 구분된다. 하동 찻사발은 때 회피(灰皮)이 묻은 물줄이 구워지며 터져 악어 껍질처럼 갈라지는 '현상'과 함께 굵바닥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까맣게 변색되면서 스핀지 같은 부드러운 손맛과 느낌을 준다. 일본 다도를 완성한 오키에 센케 가문의 히사다 쇼야씨가 길성의 찻잔을 보고 1개가 이것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고 극찬했을 정도다. 이번 전시에서는 팔 길기정씨의 함께 만든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조선박사발 천년의 비밀' 저자인 작가 정동주씨는 "이도다완이 4백여년만에 재현돼 우리를 앞에 그 여려쁜 자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02-774-1366

김주일기자



▶불교문화가 발달한 한국을 정선적 고 향이라 생각하는 이지(Izzy)의 2집 앨범 '새로운 새벽'의 재킷

정통 오페라에 감을 걸었던 '팜페라'라는 장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 이지(27) 본명 이소벨 루페가 2집 앨범 '새로운 새벽(New Dawn, EMI)을 출시했다. 지난 8월 1집 음반 '아스쿨라' 흥보차 내한 한 그는

영국 불자 팜페라 가수 이지 2집앨범 '새로운 새벽' 출시

"날마다 독경·명상할 정도로 불심 깊어"

정통 오페라에 감을 걸었던 '팜페라'라는 장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 이지(27) 본명 이소벨 루페가 2집 앨범 '새로운 새벽(New Dawn, EMI)을 출시했다. 지난 8월 1집 음반 '아스쿨라' 흥보차 내한 한 그는

"가족이 모두 불교신자이며 활동적인 특성 때문에 동양에는 친척이 없지만 불심이 깊고 불교문화가 발달한 한국을 종교적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교를 접하고 공부한 지 3년 정도 됐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이지의 음악은 다른 클래식 가수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녀의 음악은 주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명상이나 선(禪)적인 스타일이다. 현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올제하소서', 도차르트의 오페라 <피카로의 결혼> 중 '관자의 이중창', 아일랜드 민요 '수

오간', 포레의 '파반' 등 14곡이 수록돼 있는 이번 음반도 이지만의 독특한 팜페라 스타일로 편곡해서 불러 명상음악의 분위기가 풍겨난다.

지난 8월 내한 일정에 동행한 음반제작사 이몽은 씨에 따르면 "이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 경전을 읽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불심이 깊다"며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 쓰여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지는 영국에서 13세 소녀의 골수 이식 자선공연을 열었다.

영국 명문 골드홀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다 팜페라에 눈을 돌린 후 뮤지컬 대형 가수 사라브라이트만의 뒤를 잇는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지는 26일 2집 앨범 흥보차 한국을 다시 찾은 예정이다. 또 31일에는 남산 하이트 호텔 1층 리젠서스에서 특별 관객 초청 소규모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기자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中)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두풍),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 등이 나타난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재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 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고시마현 구니와메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탄백, 매실, 머위 등)

- 현대대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100일 후 환불시 100% 보장

상담문의 ☎ (02)3437-8282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일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본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명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본사찰의 외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門 총본의 고풍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과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안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한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 중, 고교의 선생님을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 1월과 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원제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략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증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빼줍니다.)
- 불교학양회, 수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강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교토, 웰가 12번째 운영 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약역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 가능합니다. (사찰관광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 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인하여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교육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門